

“장애인 편의시설 적극 정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송하진지사 의지 밝혀

지난 20일, 장애인을 맞이해 전북도에는 각종 기념식과 체험 행사 등이 잇따랐다.

먼저 전주완산체육관에서는 (사)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대표 김원경)의 주관으로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우리함께 맞춰 말할 땐 눈 높이를, 걸을 땐 발걸음을”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이날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 1,500명여명이 모여 재활의지를 북돋우고 차별없는 세상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애인 인권선언’을 낭독했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장애인들이 바깥나들이를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공공일자리인 장애인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취업뱅크를 활용한 민간일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구현의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공공일자리인 장애

인 복지일자리와 행정도우미·취업뱅크를 활용한 민간일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에는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장애인 퀴즈 한마당 ‘도전골든벨’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개인 등 21개 기관 40개팀 2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65-C (전북)지구 3·4지역 후원으로 중식과 기념품이 제공됐다. 이날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장애인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전북 순창 연산마을에서 KT CS 전북사업단 소속 KT컨설

턴트와 114 상담사 20여명이 지역주민 및 어르신 300여명을 위한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스마트폰 활용법을 교육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흥겨운 노래마당 등 재능기부를 진행한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에는 약 250만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90% 정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라며 “우리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장애는 바로 우리 가족의 일, 나의 일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영수 기자

게이트볼경기로 한중 우호 다져

전주 개최... 27개 팀 180명 참가

한국과 중국이 스포츠를 통해 우호를 다지는 게이트볼 경기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시통합체육회는 20일 전주 완산체육공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제2회 한·중 게이트볼 경기'를 개최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전주시생활체육회 전주시게이트볼 연합회, (사)한아시아문화친선교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북경시를 비롯해 내몽골, 무안, 하문 등 중국 각지에서 선발된 27개 팀 180명의 게이트볼 선수가 참가해 열띤 승부를 다했다. 국내에서도 20개 팀 1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친선경

기를 통해 우의를 다졌다.

이번 경기는 완산체육공원에서 예선경기를 치른 후 실내경기장인 송천동 전주시게이트볼구장으로 이동해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우승 팀과 우수심판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대회 참가한 중국측에 전라북도에서 교류증서 및 우승트로피가 각각 수여됐다.

시는 이번 한·중 친선교류대회가 한·중 양국이 스포츠 외교를 통해 우호를 다지고,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중국 내 전주시 브랜드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이것이 우리들의 격파술

20일 육군 35사단 대연병장에서 열린 사단 창설 61주년 행사에서 기동대대 장병이 특공무술로 병을 격파하고 있다.

덕진소방서 독초 피해 주의보

봄철 등산객들이 산나물로 오인한 독초를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20일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독초를 산나물로 잘못 알고 먹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등산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9일 전주에서도 인근 산을 찾은 일가족 3명이 독초의 일종인 '자라공'을 도라지로 잘못 알고 먹었다가 심한 복통 및 구토증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당시 인근 야산에서 취미 산도라지를 캐먹은 줄만 알고 있다가 뒤늦게 병원에서야 독초를 먹고 복통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수목원 홈페이지(<http://www.kna.go.kr/>) 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다. /안진수 기자

이미숙 전주시의원, 공인중개사협회 감사패 받아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효자 3·4동·사진)이 최근 전주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억제와 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시정고문으로 위촉됐다.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주거안정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이 의원은 투명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주시 아파트 고분양가 억



제와 전주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9대 의원때부터 공동주택 분양가가 공개 주장, LH아파트, 혁신도시·에코시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가 억제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며 아파트 분양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섰다.

이 의원은 “상식선에 벗어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주시 공동주택 분양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서원으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찾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서원으로 위원도론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는 급커브와 급경사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서원으로 선형개량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 등을 청취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국제영화제 행사장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20일 지프(JIFF)광장, 영화의거리 등 전주 국제영화제 행사장을 찾아 영화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제17회 국제영화제는 개·폐막식 등 행사공간을 영화의 거리로 집중화하면서 주차난 등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 시의원들은 교통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의원들은 지프광장에서 주차장 확

보 및 차량통제 계획 등 교통대책에 대해 청취하고, 인근 주차장을 직접 방문해 주차면 수, 접근성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또한 시의원들은 영화의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며 무비콘서트, 버스킹공연, 영화포스터 전시 등 행사이벤트가 열릴 장소들을 점검하고 영화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주국제영화제 현장 점검에 나선

시의원들은 개·폐막식이 열리는 JIFF라온지 내 야외상영관과 일반 상영장 중 하나인 전주시네마타운 등을 직접 둘러보고 “관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 점검과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를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절할 안내, 주차장 및 숙박시설 확보, 교통대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손님맞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중증 땅 팔아넘긴 7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는 20일 서류를 위조해 중증 소유 땅을 팔아 토지수용보상금 1억3700여만원을 받아 쟁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임실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중증의 대표로 중증에서 부동산 등기에 관위를 받았으니 토지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속여 토지수용보상금 명목으로 1억3700여만원을 받아 쟁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중증 소유 땅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신청을 위해 중증규약서와 결의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2016년 4월26일 개관

남원시

백두대간을 만나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 백두대간 역사관
- 3D 애니메트로닉스관
- 어드벤처 라이더관
-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린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